

국제기구들, 완도 찾아 해조류 양식 벤치마킹

세계자연기금·세계은행 세번째 방문...협력 논의 미래 먹거리·블루카본 등 우수성·가치 '원더풀'

완도 해조류가 미래 먹거리이자 해양 생태계가 저장하는 탄소를 의미하는 '블루카본'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완도군에 따르면 국제 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과 국제연합(UN) 산하 금융기관인 세계은행(WB) 관계자들이 완도를 방문했다. 특히 세계자연기금은 지난 2023년과 2025년, 세계은행도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세 번째 완도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세계자연기금과 인천대학교가 추진 중인 해조류 양식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완도군의 해조류 양식·가공 시설과 해양바이오산업 기관 견학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양산업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은 세계자연기금 관계자를 비롯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조류 산업과 공공기관 관계자 등 27명으로 구성됐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방문단을 대상으로 완도 해조류산업 현황과 비전에 대해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해조류산업 가치와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해양바이오본부를 비롯해 전복, 다시마, 톳 양식장과 해조류 종자 배양·가공 업체 등을 찾아 완도 해조류산업의 전반을 파악했다. 13일 마지막 일정으로 완도군, 전남도 해양수산 연구기관, 해조류 가공업체 관계자, 양식 종사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방문단이 현장 방문 시 궁금했던 점들을 푸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세계은행(WB) 관계자와 페루, 칠레 등 남미 국가 공무원 등 완도 해조류 양식장 방문한 모습. 세계자연기금 관계자는 "세계적 과제인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도 해조류에 대해 관심이 많다"면서 "완도의 해조류 양식과 가공 시설은 규모와 전문성 면에서 매우 뛰어나 지속 가능

한 해양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신우철 군수는 "각국에서 지속적으로 완도를 찾는 것은 완도 해조류산업의 우수성과 가능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며 "해조류산업 고부가가치와 글로벌 협력을 통해 완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해조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은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전구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해조류 주산지로서 식품산업뿐만 아니라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와 블루카본 산업 등 미래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kr

강진, 동계조사로 생산 총력 사일리지 제조작업 80% 완료

강진지역 조사료경영체들이 동계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17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43개 조사료경영체가 참여해 총 2840ha 규모의 동계조사료 재배단지에서 사일리지 제조작업을 추진, 최근 전체 제조작업의 80% 이상을 완료했다.

올해 예상 생산량은 약 4만3000t이며, 이를 사일리지 톨로 환산하면 약 10만4000를 규모로 1톤 평균 중량은 412kg 수준이다. 5월 중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년보다 약 10여일 빠르게 예취와 건조작업이 진행됐다.

군은 충분한 건조와 적기 수확이 이뤄져 조사료 품질은 양호한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조기 수확 영향으로 생산량은 다소 감소해 ha당 생산량은 전년 16t 내외에서 올해 약 15t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경국 축산과장은 "올해 생산된 조사료는 충분한 건조와 적기 수확으로 품질이 매우 우수한 만큼 한우농가에 우선 공급돼 한우 생산비 절감 등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

해남, 전남 최대 규모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11개 해외 지방정부와 협약 심의 등 거쳐 3081명 배정

해남군이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만성적인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확대·운영한다.

17일 해남군에 따르면 매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전년도 11월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광주출입국사무소에 필요 인원을 신청해 법무부 배정심사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인원을 배정, 올해 3081명을 배정받았다.

이는 전국 2위 규모이며,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인원이다.

군은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올해 11개 해외 지방정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중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에 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월에는 9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노무교육을 실시해 고용주 의식 개선에 나섰으며, 근로자 입국 때마다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인권보호, 범죄예방, 소방안전 교육도



해남군에서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일하게 될 베트남 근로자들이 최근 입국했다. 사진제공=해남군청

병행하고 있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입·출국 버스 임차료, 2차 마약검사비, 산재보험료, 재입국 성실근로자 편도 항공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정과 내에 필리핀·베트남 통역도우미를 배치해 현장 애로사항 해결과 조기 적응을 돕고 있다.

군은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기준도 일부 강화했다.

기존에는 전국의 결혼이민자가 본국의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불법취업 알선과 브로커 개입 방지를 위해 초청 범위를 2촌 이내 가족으로 축소하고, 결혼이민자의 거주지도 광주·전남 지역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 인력 수급처를 지속 확대해, 체계적인 지도·관리를 통해 제도가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성성주 기자 sjs8239@

진도, 올해 물김 위판액 2474억 달성

2년 연속 위판액 2400억 돌파...성장세 지속

전국 최대 김 양식장을 보유한 진도군은 올해 12만2866t의 물김을 생산해 2474억원의 위판액을 달성했다.

김 가공 분야에서도 약 1900억원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김 산업 전반에서 2년 연속 총 4500억원 규모의 생산 성과를 달성했다.

군은 올해는 수온이 불안정하고 양식장에서 병이 자주 발생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분석했다. 어려운 생산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위판액 2400억원을 돌파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입증하며 김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올해 어려운 해양 수온에서도 지난해와 비슷한 성과를 거뒀고, 내년도에도 전국 최고 김 생산지의 위상을 지킬 수 있도록 김 품질의 향상과 생산량 증가를 위해 앞으로도 아낌없는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종부표 보급, 활성 처리제 지원 등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힘쓰고 고품질의 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진도군은 1만6043ha 김 양식장, 20만3147척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태양의 알로에> 슈퍼겔 맥스

1일 면역 다량체 300mg 함유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양의 알로에를 낳다. 면역력을 단다. SUPERGEL MAX 유니베라 슈퍼겔 맥스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7, 상무타워 7층 (상무역 지하철 4번출구) 문의: 062.373.0058 대표이사 신영승

유니베라 남양알로에 상무점에서 유니베라 50주년을 맞아 건강을 함께 실천하고 나누는 '생활 밀착형 건강 캠페인' 멕시코 농장에서 키운 알로에 묘목을 나누어 드립니다.

2026년 05월 28일 오전11시부터 '선착순'